

일정기간 자원봉사로

4개연맹 윤번제로 1회 평균 100명 동원



神戸(고베)市 어항관리회의에서 쓰레기 청소협력금이란 명목의 입어료를 낚시꾼에게서 징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그때 당국과 유어자 쪽에서 “낚시꾼도 어부도 바다에 쓰레기를 휩 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있어서 난처한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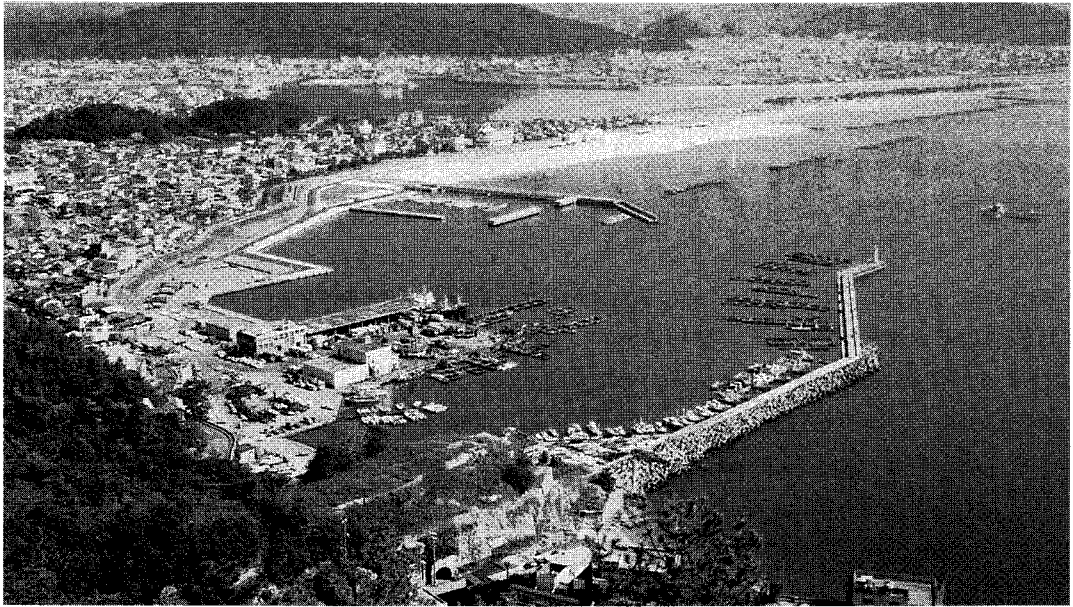
이때 조합장이 “이 어항이 생겨나서 25년이 경과하였다. 그 지나간 세월동안 항내에 쓰레기를 흩뿌려서 더럽혀 온 것을 일조일석에 돈을 징수한다고 해서 아름다와질 리가 없다. 이 문제는 끈기있게 맞붙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한 것이 12년전이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이라면 누구든지 제멋대로 말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하고 兵庫縣 낚시단체협의회의 위원회에서 재삼 검토한 결과 神戸市 어

협, 垂水어항 부인부 회의 협조로 쓰레기가 많아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산하의 4개 연맹이 윤번제로 1회의 청소봉사에 평균 100명을 동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되어 현재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여기 神戸市 垂水어항에서는 6월부터 11월경까지 한마리씩 낚아올리는 어부로 놀래기와 보리멸등의 잔챙이 낚기부터 농어나 방어등 큰낚기의 유어선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이용하여온 사실이 있고, 그 고장 어민들의 낚시꾼에 대한 잠재적인 이해력이나 포용성이 있어 다행히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오부터 청소봉사를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거의 청소작업이 끝날무렵인 오후 1시가 지나서는 선박이 정박한 주변의 해변에



비닐봉지등의 쓰레기를 손잡이가 긴 그물장대로 건져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금늦게 낚시꾼을 태운 어선이 안벽과 이미 계선하고 있는 어선사이에 들어와서 로프를 쥐고 계류하였다.

어선의 활어조안에서 놀래기와 보리멸을 소형 그물로 건져올리고 있는 낚시꾼, 그의 심부름꾼, 자기 수하물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갑자기 빈도시락을 싣 신문지를 배가장자리에서 해면으로 버렸다.

바로 앞에서 청소봉사를 하는 것이 무시당한 것 같아 클럽원들이 노하여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곧 다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봐 이

봐,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나쁘지 않은가.”라고 충고하였더니, 당황해서 작대기를 끼운 그물로 도시락을 주어들려 바로 옆의 통에 넣었다.

이때, “어제서 우리 낚시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안벽에서 도와주고 있던 낚시꾼의 아내가 대들었다. 내심 약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낚시꾼을 태우고 귀향해 오는 시간대는 여러가지로 어수선하고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후부터는 오후 3시로 시간을 늦추어 청소봉사를 하게 되었다.

어젯든 垂水어항의 서쪽 매립지에 해양레크레이션 센터 빌딩이 건설되고 요트항구가

생기고 제3의 바다낚시 공원도 완성될 예정이므로 쓰레기 협력금 징수가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청소 자원봉사활동은 그시점에서 재검토되리라 생각한다.

요즘 어협이나 어민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적어졌다고 평가되기 시작했다. 쓰레기 상자의 증설이나 수집, 쓰레기를 버리는 데 대한 주의의 안내방송을 하는 등 神戸市 농정국장을 비롯, 관계당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 겨우 쓰레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

(筆者: 藤澤淳一郎 (社) 全日本낚시단체 협의회 부회장. 兵庫縣 낚시단체협의회 회장)